

바랍니다.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저에게 이런 관심을 써주신 것만이라도 저와 가족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<그리고 절대적으로 제가 금지한 음식을 철저히 지켜주시어야 합니다> <알겠습니다> <그리고 차가버섯-러시아산을 구입해서 82도까지 끓인 후 서서히 1시간 식혀서 매일 400~500cc를 복용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중국 운남성에서 나오는 것은 효능이 없습니다. 꼭. 러시아산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> <알겠습니다>

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, 가을이 되어지는 한반도의 날씨는 마음의 포근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. 평택농장에서 낙엽이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산책을 하면서 보내고 있던 곳에도 이제는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후 국장과 인연이 되어진지도 2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. 조용했던 2달 동안 암과 줄다리기는 긴장의 연속을 달리고 있었지만 후 국장님만 천하태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. 어쩌면 그런 성격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좋아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 입니다. < 권 닥터는 언제 중국에 들어오나요?> <사실 아직 생각을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. 사실 한국에 11년만에 들어와서 적응하기 어렵네요. 같은 한국사람인데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물 접근하는 방식이 저와 많이 틀린 것 같아서 농장 내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> <하하하하하...이제 반은 중국사람이 되었으니 중국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어떤지요?> <하하하하하...그래도 태어난 조국이 좋습니다> 참으로 암이라는 것이 요상한 것 같습니다. 자연 존재하는 식물들과 동일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. 가을 되어지면 모든 곡식과 채소 그리고 나무들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매를 만들어 가듯이 암 세포도 죽으려고 하면 꼭 다른 곳으로 뛰어나는 (전이 형태, 또는 확산 현상)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때가 되면 간혹 치료를 받다가 닥터를 의심하거나 불안한 감정으로 의사와